

“사랑하라”는 명령은 성립가능한가?

이영환*

【요약】

이 논문의 주제는 기독교의 사랑을 논의주제로 삼아 ‘사랑하라’는 명령이 성립가능한지를 묻고 그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는다. 사랑의 개념상 ‘사랑’과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는 개념 사이에는 충돌이 있어서 (‘사랑하라’는) 명령에 복종함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라’에 담겨있는 지시의 계기는 (만약 지시의 계기가 있다면) 복종하지 않으면 벌이 준비되어 있는 명령이라기 보다는 권유, 권고로 이해되어야 하며 명령과 복종이라는 법칙적 틀에서 보다는 신이 먼저 갖추고 우리를 그를 통해 감화하는 신적 덕의 틀에서 이해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논의는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할 만한 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촉발한다.

【주제어】 신, 사랑, 명령, 신명론

* 이화여대 철학과 조교수

<https://doi.org/10.34162/hefins.2021..27.003>

I. 문제제기

이 논문은 기독교의 사랑을 논의 주제로 삼아 ‘사랑하라’는 명령이 성립 가능한지를 묻는다. 나사렛 예수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38, 개역개정판)

그런데 계명을 신이 인간에게 복종하라고 내린 일종의 명령으로 이해할 때 도대체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명령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은 도대체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집에 강도가 들어 내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협박하면서 나에게 무언가를 명령한다고 해보자. 강도는 나에게 무엇을 명령할까 혹은 명령할 수 있을까? 보통, 금고를 열라든지 아니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강도가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내 능력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런 종류의 행위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강도가 내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하늘을 날아봐”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명령을 하는 강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미치광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도대체 ‘명령’이란 개념의 특성상 피명령자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것(더 정확히는, 명령자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명령의 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윤리학에서 종종 언급되는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Ought implies can”는 말이 뜻하는 바가 이것이다.

만약 우리가 “당위-능력”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사랑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진대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칸트의 언급도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칸트는 그의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성경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성서의 구절들도 의심할 여지없이 이렇게(즉, 경향성이 아닌 의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향성으로서 사랑은 지시명령될 수 없는 것이지만, 비록 어떤 경향성도 그것을 채근하지 않음에도, 아니 자연적이고 참을 수 없는 혐오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의무로부터 하는 선행 자신은 실천적 사랑으로서, 정념적 사랑이 아닌 것으로, 실천적 사랑은 의지 안에 들어 있지, 감각의 성벽에 있지 않으며, 행위의 원칙에 있지 애잔한 동정에 있지 않은바, 이런 실천적 사랑만이 지시명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¹⁾

칸트는 예수가 말하는 ‘사랑’이 경향성이라면 그것은 명령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랑을, 대상에 대한 혐오가 있더라도 그것에 반대하여 이겨내고 의지로서 자신에게 강제하는 사랑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칸트는 “사랑하라”를 당연스레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칸트는 “사랑하라”가 명령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사랑(칸트의 표현을 빌면, “정념적 사랑”이나 “애잔한 동정”)은 명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예수가 명령하는 사랑에 대한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예수의 “사랑하라”는 언명을 명령으로 이해해야만 할까? 아래에서 필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그에 근거하여 “사랑하라”라는 언명을 대안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 논문이 주제로 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짚고 넘어가자. 성경을 인용하며 이 글을 시작했듯이 필자가 논의하

1) 칸트, 백종현 역 (2018), IV 399, 괄호 안 이탤릭은 필자.

는 사랑은 일차적으로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언급되는 사랑, 굳이 구별을 하자면 소위 아가페 사랑이다. 하지만 앞서 ‘당위·능력 원칙’을 언급하면서 지적인 논점은 꼭 기독교적 사랑이 아니라 사랑 일반, 아니 감정 일반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현상은 우리가 익히 아는 흔한 경험이다. 사랑은 우리가 마음먹는 대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라’는 명령은 명령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필자의 주장은 꼭 기독교적인 사랑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필자는 기독교적인 사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사랑과 대립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때때로 유용할 수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²⁾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논의에서 필자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II. “사랑하라”는 명령인가?

예수의 “사랑하라”는 언급을 신이 우리 인간에게 내린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서를 읽을 때 가장 상식적인 이해일 것이다. 예수 자신도 “계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은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어서 아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특별히 논의를 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필립 퀴는 신명론divine command theory을 다루는 글³⁾에서 왜 예수의 “사랑하라”를 말을 명령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2) 사랑의 종류를 구분하여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상식적인 사랑과 소위 ‘아가페’ 사랑의 구분이고 또 하나는 앞에서 칸트가 언급하듯이 정념 내지 감정으로서의 사랑 (혹은 최소한 그런 부분이 핵심을 이루는 사랑)과 그와는 관계없는 의지로서의 사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가는 말에 다시 상술하겠다.

3) Philip Quinn (2000).

키에르케고르를 원용하면서 논의한다. 퀴에 따르면 “사랑하라”를 명령으로 이해해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두 이유는 예수가 말하는 사랑이 통상적인 사랑과 다르게 보편적이고 무조건적/불변적이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1) 모든 이웃을 차별 없이, 게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도덕적 허용이 아닌) 강한 명령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보편성)
- 2) 예수가 말하는 사랑은, 대상이 가지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랑할만한 특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감정이나 개인적 선호에 기반 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의무에 기반 해야 한다. (무조건성/불변성)

우리는 때로 예수가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평범하게 경험하는 사랑과 구별해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가페 사랑은 “...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 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적, 절대적인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의 무조건성은 보편성과 불변성을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보편적이며, 사랑할 조건이 성립했다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불변한다. 예수의 사랑을 퀴에 의무에 기반한 명령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 이런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랑이기에 자발적으로는 생겨날 수 없는 것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명령되어야 하고 불변하는 의무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퀴에 주장에, 그리고 아마도 보편적인 성서이해에 반대하여 필자는 성경의 “사랑하라”는 말을 명령으로 이해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다. 특히나 ‘명령’을 단순히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앞에서 필자는

4) Philip Quinn (2000), pp. 58-59.

“당위-능력”원칙을 언급하면서 ‘사랑하라’를 명령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것만으로 필자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은 쿤의 논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예수가 말하는 사랑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훨씬 더 엄중한, 어쩌면 인간에게는 불가능할지도 모를 정도로 급진적인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더더욱 명확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식적인 사랑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라”는 말을 명령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근거가 주어진 것은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쿤이 그러하듯이 예수가 말하는 사랑의 그런 급진성이 오히려 그런 사랑이 명령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런 사랑이 의무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할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여기서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잠시 “당위-능력” 원칙에 대한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덧붙이겠다. 앞서 필자는 사랑하고 말고는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하고 문제제기를 했었다. 그런데 사랑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데에는 여러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사랑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의 하나는 사랑이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촉발하는 동기 또는 태도에 속하기 때문이다. 행위는 내가 내 결정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⁵⁾ 행위의 동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위의 강도의 예에서 강도가 “죽고 싶지 않으면 현금카드를 내놓아”가 아니라 “죽고 싶지 않으면 기꺼이 현금카드를 내놓아” 혹은 “죽고 싶지 않으면 현금카드를 내놓고 싶어해”라고 명령하는 경우를 상상해보라. 강도의 협박에 두려움에 떨면서, 주고 싶지 않지만 현금카드를 강도에게 건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그 행위를 기꺼이 원해서, 즐거이 하라는 것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 또는 태도, 아니면 행위와 연결된 감정에 대한 명령이고 그런 한에서 내가 마음대로

5) 이것은 단지 행위가 가지는 우연적인 특성이 아니라 행위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이 명령될 수 없는 것이라는 직관의 배후에 있는 생각은 무엇보다 바로 이것일 것이다.

이 면에서 “사랑하라”를 “기뻐하라” 혹은 “감사하라”라는 성경의 다른 언명과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뻐하는 표정, 몸짓은 내가 원한다면 짐짓 꾸며 지을 수 있지만 정말로 (마음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기쁨도 감사도 내가 내 결정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종류의 태도 또는 감정이라면 “기뻐하라”, “감사하라”도 “사랑하라”와 마찬가지로 명령으로 성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다시 “당위-능력”원칙이 예수의 “사랑하라”는 언급을 명령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돌아오자. 문제되는 논리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여기서 논의되는 세 개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나열해보자.

- a)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 b) 당위(명령)는 능력을 함축한다. (“당위-능력” 원칙)
- c) 사랑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 세 주장은 합쳐놓았을 때 모순되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세 주장 중 최소한 하나는 기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b)와 c)를 모두 받아들인다면 a)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랑하라”는 언급은 명령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a)를 유지하려면 b)와 c) 둘 중 하나를 기각하면 된다. 이제 ‘사랑하라’를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보자. 다음 두 입장은 각각 b) 또는 c)를 기각하거나 또는 적절히 수정함으로써 a)를 유지한다.

첫 번째 가능성은 (“사랑하라”를 포함한) 성서에서의 명령은 “당위-능력” 원칙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고 사실상 그것(즉, 우리에게 명령에 따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성서에서 여러 급진적인 명령이 주어지는

이유라는 것이다. 신이 계명을 내린 이유는 그 명령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명령을 수행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즉 구원은 전적으로 신의 은총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산상설교에 등장하는 계명의 급진화는 이러한 이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1

“살인하지 말라 …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5:21-28)

필자는 이러한 접근이 위의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명령(“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에는 어쩌면 적용될 수 있지만 “사랑하라”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단지 “너희는 어차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기는 힘들다. 물론 인간으로서의 우리, 아니 나의 근본적인 한계, 나의 악함을 깊이 깨닫는 것(“회개”)은 기독교에서의 신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며 나중에 다루듯이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⁶⁾ 하지만 사랑이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우리가 신을 경배하고 닮아갈 때 그 닮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사랑하라”가 단지 부정적인 포인트를 갖는 것이라고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c)를 적절하게 수정함으로써 세 주장 사이의 비일관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예수가 말하는 사랑은 틀림없이 내가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빌 4:13)

6) 아래 III절 후반부를 보라.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신이 인간으로서서는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서는 나몰라라 하는 신이 아니라 동시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돕는’ 신이라면, 그래서 사랑은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 도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의 세 명제 사이의 비일관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 두 입장 모두 기독교 전통에서 널리 퍼져있는 아이디어이고 특히 두 번째 입장은 필자도 받아들인다. 그러니 “당위-능력” 원칙에 의존해서 예수의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명령이 아닌 것으로 이해할 것을 논증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하지만 필자는 ‘사랑하라’를 명령이 아닌 것으로, 아니면 최소한 그 ‘명령’의 의미는 상당히 약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사랑의 개념이 ‘명령의 복종’의 개념, 그리고 ‘의무’의 개념과 내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그것을 명령으로 이해한다면)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 의무감에서, 혹은 “사랑하라”는 명령에 단지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누군가 의무감에서 혹은 명령을 따라 복종하여 사랑한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일까? 필자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마이클 스토크의 논문⁷⁾에서 따온 다음 예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어서 몹시 심심하고 지쳐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친구 철수가 일부러 당신을 멀리서 찾아와 장시간 수다를 떨며 기분전환을 해준다. 당신은 철수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해준다고, 즉 당신을 친구로서 사랑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동한다. 너무나 고맙다는 당신의 칭찬과 감사에 철수는 쭈뼛쭈뼛하더니 자신은 단지 “사랑하라”는 신의 명령에 복종한 것뿐이라고 대답한다. 당신은 처음에는 철수가 그저 겸연쩍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얘기할수록 철수의 말이 글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당신을 위로하러 온 것은

7) Stocker (1976), p. 462.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혹은 신이 부과한 “사랑하라”는 의무에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행위의 동기에는 구체적인 개별자인 당신에 대한 배려나 걱정, 관심은 없었고 단지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신의 명령에 더 잘 복종할까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

여기서 던질 질문은 이것이다. “철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철수가 나에게 선행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철수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철수가 당신을 친구로서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다가 철수의 행위의 동기를 알게 되는 순간 철수가 당신의 친구라는 믿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 실제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사고 실험의 포인트는 ‘사랑’이라는 개념의 특성상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복종이 정말 사랑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개념과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는 개념 사이에는 모종의 충돌이 있어서 “사랑하라”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

이 생각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 “쾌락주의의 역리(hedonistic paradox)”를 원용해보겠다. 쾌락주의의 역리는 종종, 매 순간 당장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은 길게 볼 때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다분히 상식적인 지혜로 이해되기도 하지만,⁸⁾ 사실 ‘쾌락주의의 역리’라는 말은 쾌락/즐거움이 가지는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특성을 지적해주는 말이다. 그 특성이란 즐거움은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아 직접적으로 추구하면 얻어질 수 없고 오히려 즐거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목적으로 삼아 추구할 때에만 마치 부산물처럼 얻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것이다.⁹⁾ 다음 예를 살펴보자.

8) 쾌락주의의 역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이 문제는 쾌락주의를 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큰 쾌락을 추구하라는 것일 뿐이다.

9) Feinberg (2013), pp. 505-506.

철저한 쾌락주의자인 어떤 사람을 상상해보자. 즉, 그는 행위하고 선택할 때 즐거움을 그리고 오직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서는 즐거움 외에 어떤 것도 목적으로서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단지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아름다운 음악이나 그림을 감상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쾌청한 가을날 숲길을 산책하며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즐거운 이유는 그 순간 우리가 연인을 수단으로 삼아 다른 어떤 것(예를 들어, 즐거움 등)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에 대한 자신의 관심은 그 순간 잊어버리고 연인에게 전적으로 몰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아무것에서도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사람, 즉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즐거움’이라는 개념과 ‘목적(으로서의 추구)’이라는 개념 사이에 모종의 충돌이 있어서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추구함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개념 사이의 모종의 충돌’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충돌은 물론 개념 사이의 논리적인 모순은 아니다. 즐거움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개념적으로 가능하다. 굳이 표현하자면 실천적인 모순이라고 불러야 할까? 즐거움을 목적으로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목표하는 즐거움을 얻는데에는 실패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제 우리의 원래 주제로 돌아가 보자. 앞에서 나는 ‘사랑’이라는 개념의 특성상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복종이 정말 사랑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또한 ‘사랑’이라는 개념과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는 개념 사이에는 모종의 충돌이 있어서 “사랑하라”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리고 쾌락주의의 역리를 살펴봄으로써 필자의 주장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쾌락주의의 역리의 경우에서 우리가 관찰한 바를 “사랑-명령”의 경우에 적용하자면, ‘사랑’과 ‘명령(의 복종)’이라는 개념 사이에도 ‘즐거움’과 ‘목적

(으로의 추구)’사이에 존재하는 실천적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이 경우에도, ‘사랑’ 개념과 ‘명령’ 개념 사이에 논리적 모순은 없다. 사랑을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명령에 복종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개념적,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두 개념 사이의 충돌은 실천적 모순이라고 부를 법한 무언가이다. 즉, ‘사랑’이라는 개념의 특성상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서 사랑을 한다면 사랑의 본성상 그것은 사랑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¹⁰⁾

이 두 사례 사이에 성립하는 유사성은 단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위에서 쾌락주의의 역리를 설명하면서 은연중에 강조했듯이 쾌락주의의 역리도 사실 쾌락/즐거움에 관한 것인 만큼이나 사랑에 관한 것이다.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대상에 더 깊이 관심 갖고 매료되고 몰입하는 태도로서의 사랑은 대상을 수단으로 간주할 때 파괴되거나 최소한 약화되며 나에 대한 이기적인 관심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쾌락/즐거움의 원천이다.

III. 명령하는 신 vs. 감화하는 신, 신을 앎으로서의 신앙, 그리고 사랑의 가능성

지금까지 필자는 예수의 “사랑하라”는 말을 명령으로 이해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제 논의의 범위를 넓혀서 필자가 이해하는 예수의 메시지를 기독교 신앙 전체의 맥락 속에 위치 지워 보겠다. 필자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신에게 가질

10) ‘사랑하라’는 명령에 물론 사랑하는 시늉은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시늉’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린 신에 대한 존경을 전제로 하는 것일 수 있으며 그런 한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사랑하는 시늉이 사랑일 수는 없을 것이다. 관련하여 주 20)을 보라.

올바른 태도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신은, 특히 예수가 드러내주는 신은 사랑의 신이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말하지만 현실 신앙의 모습 속에서 신은 주로 명령하는 신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명령을 내리는 신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은 분노하고 징벌하며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의인은 신의 사랑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의인은 아예 없거나 극소수라서 명령하는 신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분노에 차있다. 최소한 구약에서 신은 자주 이런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신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서는 명령에 대한 복종이 기독교인의 미덕으로 강조되는 데 물론 복종이 특히나 요구되는 맥락은 그 명령 자체가 혹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이유가 수긍되고 이해되지 않을 때이다. 대표적인 예는 사랑하는 자식을 인신공양하라는 신의 명령을 그대로 복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이다. 이렇듯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복종할 의무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맹목적,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¹¹⁾ 하지만 이러한 신 이해는 우리를 신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로 이끌지 않는다. 물론 신이 이런 존재라면 우리는 신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하지만 그 복종의 근원은 공포와 자기보존의 욕구이며 그러한 복종을 요구하는 신은 경배할만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무소불위의 폭군을 두려워하고 복종하겠지만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하지는 않는다.

11) 안타깝게도 이런 이유로 신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반지성주의를 배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요람 하조니의 『구약성서로 철학하기 the Philosophy of Hebrew Scripture』(하조니 요람, 김구원 역 (2016))는 흥미로운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구약성서가 말하는 신에 대해 인간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혹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무조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성서의 신은 오히려 신의 뜻(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조차도 때로는 의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여 그를 통해 진정한 신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기뻐한다.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인물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거스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지적인 신선함을 넘어 혁명적으로까지 들린다.

기독교의 신 이해에서 ‘명령’과 ‘복종’의 개념이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를 (최소한 과거에는) 차지했는지는 서구 윤리학사에서 신명론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신명론이란 도덕적인 올바름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신의 뜻/명령에 있다는 이론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하는 이유는 신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에게 명령하는, 또는 인간이 따를 법을 제정하는 명령자/입법자로서의 신의 개념에 윤리학을 정초시키는 신명론은 중세를 지나서 17,8세기에 근대 윤리학이 등장할 때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이론이다.¹²⁾ 신명론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종교철학자, 윤리학자들만이 관심을 가지는 이론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리주의, 의무론 등 현대 윤리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의무duty, obligation’, ‘당위ought’를 비롯해 ‘도덕적moral’이라는 말조차 그 개념의 뿌리에는 신명론적 이해, 즉 입법자/명령자로서의 신에 대한 이해가 저변에 깔려있다고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을 정도로 신명론은 윤리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¹³⁾

하지만 필자는 기독교의 신을 기본적으로 명령하는 신으로 이해하는 신명론적 시각에 반대한다.¹⁴⁾ 필자가 이해하는 기독교의 신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를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사랑함으로써 그 존재를 감동, 감화하는 신이고, 그것이 예수가 드러내 보여준 신의 모습이다. 기독교의 신, 예수가 드러내 보여준 신은 명령하는 신이 아니라 감화하는 신이다.¹⁵⁾ 그리고 오직 그러한 신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12) Schneewind (1998).

13) 앤스컴은 신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의무’등의 개념은 개념으로서의 유용성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개념을 폐기하고 윤리학을 새로 정립하자는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Anscombe (1958).

14) 플라톤의 대화편 『에우튀프론』은 신명론 주제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고전적인 텍스트이며 권위주의적 도덕이론으로서의 신명론에 대한 대한 플라톤의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다. 『에우튀프론』과 신명론과 관련한 필자의 견해는 이영환 (2021)을 보라.

15) 관련하여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특히 4장을 함께 읽어볼 만하다.

존재이다.

그리고 신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로 연결된다. 앞에서 필자는 예수가 말하는 사랑이란 급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단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신은 ‘돕는’ (“능력주시는”) 신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인다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신(의 은총)은 그런 사랑의 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최소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나 자신이 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것이다. 나의 한계, 약함, 그리고 약함을 깊숙이 누우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이다. 두 번째는 나를 포함한 악인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서의 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¹⁶⁾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신의 모습은 가장 감동스러운, 그리고 (어쩌면 유일하게) 경배할만한 신의 모습이다. 이러한 신의 사랑의 모습으로부터의 감동은 우리 안에 있는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한 미움, 질투의 껍질을 용광로처럼 녹여낸다.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을 따라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또한 이렇게 신의 모습을 알고 감동할 때 우리에게는 사랑할 뿐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가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분과 함께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 이해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철학에서 신은 종종 전지전능 그리고 전선한 신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신의 전지전능전선함은 사실 사실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신의 모습이다.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신의 사랑은 단지 전선함을 넘고 신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전지전능을 역설적으로 넘는 섬김과 희생을 보여준다.

16) 물론, 이 두 요소는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동시에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하라”를 어떻게 이해할까? 앞에서 필자는 ‘사랑’이라는 개념의 특성상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서 사랑하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게 된다고 지적했었다. 그렇기에 ‘사랑하라’는 명령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그런데 명령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두 가지 제안이 있을 수 있겠다. 첫 번째 제안은 “사랑하라” 속에 들어있는 당위의 계기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자율적이 되어라”라는 명령을 생각해보자.¹⁷⁾ “자율적이 되라”는 명령은 원칙적으로 복종할 수 없는 명령이다.¹⁸⁾ 누군가가 이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단지 그 명령에 복종하려고 자율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명령에 단순히 복종하려는 태도 자체가 자율적이 되라는 명령의 내용과 상충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율적이 되라”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단지 올바른 행동을 하는 인간이 되길 바랄 뿐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동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자율적이 되어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때 “자율적이 되어라”라는 말은 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그 말을 듣는 아이는 부모의 명령에 복종함을 통해 그 명령의 내용을 성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율적이 되어라”라는 언명은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권유나 권고로서만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사람(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하듯이 제대로 된 덕은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덕의 추구는 진정한 덕의 추구가 아니게 된다.¹⁹⁾ 명령에 대한 단순한 복종도 덕을 올바르게 추구하는 방식이 아님은 물론이다. 기독교 전통에서 신과 인간 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되는데 신의 ‘사랑하라’는 언명도 마찬가지로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이라기 보다는

17) 이 예는 강성훈 교수와의 대화로부터 얻었다.

18) 거꾸로 ‘네 멋대로 해라’는 복종할 수 밖에 없는 명령이다.

19)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II권 4장, 1105a25ff.

인간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에 기반한 권유, 권고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된 신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닮아가려고 할 만한, 그리고 경배할 만한 그런 신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제안에는 아직 문제가 있다. “사랑하라”에 담긴 당위의 계기를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닌 사랑이 담긴 권유, 권고로 약화시킨다고 해도 당위-능력 원칙에 따른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명령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것을 권유, 권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라”에 담긴 당위의 계기를 단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정할 수 있을까?

“사랑하라”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두 번째 제안은 그런 가능성을 모색한다. 두 번째 제안은 “사랑하라”는 언명이 가리키는 것이 말 그대로 사랑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경배하기에 합당한, 그리고 사랑하기에 합당한 신을 만남, 혹은 그런 신에 대한 앎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대상을, 사람이든 예술 작품이든, 상상해보라.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 누군가가 그 아름다운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데 필요한 것은 단지 그 아름다운 대상을 만나보는 것뿐이다. 만약 신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라면 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단지 신을 보여주기만 하면 될 뿐이다. 그리고 신은 그렇게 자신을 이미 보여주었다(“계시”). 신을 만나 알게 되면 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명령으로 복종을 요구할 것이 전혀 아니다. 앞에서 필자는 “사랑하라”뿐 아니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언명도 언급했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신을 만나보아 알게 되면 사랑과 함께 기쁨과 감사도 역시 자연스럽게 동반할 것이다.²⁰⁾

20) 앞의 주 10)에서 필자는 사랑하는 시늉이 사랑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사랑하는 ‘시늉’이 신을 알고자 하는 노력에 기반한 것이라면 단지 연극이나 위선 혹은 자기 기만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시늉이 사랑은 아니어도 사랑하는 시늉을 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적을 해주

IV. 나가며 - 사랑의 연속성과 초월성

이 글에서 필자는 기독교의 신을 명령하는 신이 아니라 감화하는 신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춰 예수의 “사랑하라”는 말을 인간의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개선하는 도중에 필자는 예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 초월적인 사랑, 혹은 신의 사랑 등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방식에 약간의 불만을 표시했었다. 결론을 대신해 이와 관련한 필자의 생각을 설명하고 글을 마치겠다.

예수가 드러내 보여주는 사랑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신의 사랑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사랑과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아가페 사랑’, ‘신의 사랑’, ‘초월적인 사랑’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이러한 개념 구분은 좀 더 능률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편리한 도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이 신의 사랑의 초월성만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랑에 드러나는 연속성을 가리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너무나 불완전한 형태의 사랑조차도 궁극적으로 신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동일한 하나의 단어 ‘사랑’으로 불러야 할 그런 사랑이다. 필자는 이 맥락에서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디오티마의 “사랑의 사다리”라는 아이디어를 원용하고 싶다.²¹⁾ 『향연』에서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라는 여사제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사랑(‘에로스’)이 특정한 아름다운 몸체에 대한 사랑-아름다운 몸 일반에 대한 사랑-영혼/행위/법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삶에 대한 사랑-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사랑으로 상승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이 모든 계열에서 사랑은 신비적인 상승의 과정을 겪지만 제일

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21) 플라톤 『향연』, 199c-212c. 물론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는 *erôs* 이다.

낮은 단계에서의 사랑도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도 같은 단어인 사랑으로 불려야하는 사랑이다. 기독교의 신을 아는 데에 신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또한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불완전한 사랑도 그 불완전함을 통해 오히려 완전한 신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중요한 경험이며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귀중한 선물이다.

참고문헌

-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 외 역 (2006),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이영환 (2021), 「“에우튀프론 문제”와 권위」, 『서양고전학연구』 60(2): 55-72.
칸트, 임마누엘 (1785), 백종현 역 (2018),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켈러, 팀 (2011), 윤종석 역 (2016), 『탕부 하나님』, 두란노.
플라톤, 강철웅 역 (2020), 『향연』, 아카넷.
하조니, 요람 (2012), 김구원 역 (2016), 『구약성서로 철학하기』, 홍성사.

- Anscombe, Elizabeth (1958),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 1-19.
Feinberg, Joel (2013), “Psychological egoism” in Joel Feinberg and Russ Shafer-Landau (eds.) *Reason and Responsibility*, pp. 501-513, Wadsworth. (15th edition).
Quinn, Philip (2000), “Divine command theory” in Hugh LaFollette (ed.) *Blackwell guide to ethical theory*, pp. 53-73, Blackwell.
Schneewind, J. B. (1998), *The Invention of Autonomy*, Cambridge Univ. Press.
Stocker, Michael (1976). “The schizophrenia of modern ethical theories”, *The Journal of Philosophy*, 73: 453-466.

【Abstract】

Can One Be Commanded to Love?

Lee, Yungwhan

This paper asks whether the command to love (God and the neighbors) should be understood really as a ‘command’. My answer is in the negative. I argue that the notion of love conflicts with the notion of obeying command and with the notion of obligation and therefore that ‘Love God’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command, especially in legalistic terms of threat of punishment in case of disobedience. The urging element in ‘Thou shall love God’ , if there is any, should instead be understood as sincere entreatment or imploration. The Christian God is not commanding God but inspiring or moving God, who inspires or moves us by revealing Gods’ divine virtue of Love through Jesus, and this shows the very praiseworthiness of God and opens for us the very possibility of truly loving.

【Keywords】 God, Love, Command, Divine Command Theory

논문 투고일: 2021. 10. 03

심사 완료일: 2021. 10. 17

게재 확정일: 2021. 10. 17

